

뉴멕시코주
한인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5월호
May. 2010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IN ALBUQUERQUE

[한인회 소식]

1) 동포 간담회: 지난 4월 9일 La에서 오신 김제수 총영사님을 모시고 뉴멕시코를 위해서 각 기관에서 수고하는 대표들을 모시고 동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인 사회에서의 애로점과 개선 및 건의 사항, 주 발전과 홍보를 위한 여러 좋은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이 모임에는 뉴멕시코주 홍보대사로 위촉된 이옥주님도 함께 자리해서 뉴멕시코주의 발전을 위한 의견들을 모았습니다.



2) 순회 영사업무: 4월 10일(토) 재외국민 등록부 등록, 여권갱신 및 발급, 각종 서류 발급 등의 업무를 보았습니다. 영사 업무가 1년에 2회 정기적으로 있는 것을 모르는 주변 분들에게 많이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3) NMSU 대학교에서(라스 크루시스)

NMSU 대학은 아시아의 날 중 4월 19일을 한국의 날로 정해서 한국에 대해서 알리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날, 라스 크루시스 교민, 대학생들과 함께 한국문화를 알릴 수 있는 물품을 전시하고 한국을 알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진3] 라스크루시스 교민들 / 김명주교수, NMSU학교장과 함께 / 이희정 무용가

4. EEOC 회의참석: 4월 29일 (사진4)

5. 어버이회모임: 4월 15일 침례교회 음식후원 (사진5)

6. 인구조사 Census: 2010. 3/19~4/19 한달동안 시행 (사진6)한인회관에서 인구조사, 봉사자들과 함께



The Voice in the Wilderness is a Korean journal published for Korean residents living in New Mexico. Our goal is to help the Korean community of New Mexico. Especially the Ethnic Minority Local Church Task Force in the New Mexico Annual Conferenc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supports for publishing this journal. We distribute this journal at the major cities in New Mexico to find out Korean residents and make a network for helping each other. If you have question, contact Mrs. Choy by phone (505-553-1009) or email (kuchachoy@q.com).



[사진4] EEOC 회의참석: 4월 29일 김영신부장과 김두남회장



[사진5] 어버이회모임: 4월 15일 침례교회 음식후원



[사진6] 한인회관에서 인구조사, 봉사자들과 함께

[한국 국민연금공단 안내문]

한인회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국 국민연금공단입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질병, 부상으로 인한 장애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의 상실

및 중단 시에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1987년에 설립되어 현재는 가입자 1,800만 여명, 연금 수급자가 280만 여명에 이르며, 270조원의 연금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협정에 의한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파견근로자 및 교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외국과 협정이 조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외교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정은 협정체결국간 연금제도의 서로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하여 양 체결국 국민에게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구 간에 체결되는 조약입니다.

협정의 혜택 중 하나는 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충족기간 산정시 양국의 연금기간을 합산해 주는 것입니다. 외국으로 이민 가거나 장기체류하여 연금가입기간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은 가입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어느 일방 국가의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분리된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협정에 따라 수급권을 결정하므로 해당국가의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각 협정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끝으로 귀 한인회의 건승과 행운을 빌겠습니다.

*연락처

(주소) 우편번호 : 138-725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16, 국민연금공단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부

(전화) 82-2-2240-1089~10 (팩스) 82-2-3485-9803

(주소) 우편번호 : 110-110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33 영풍빌딩 9층 국민연금공단 국제업무센터

(전화) 82-2-2176-8700~10 (팩스) 82-2-3485-9804

*홈페이지: www.nps.or.kr

2010. 4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회 보장협정에 의한 외국연금 청구 안내]

*사회보장협정이란?

-사회보장협정은 국가 간 사회보장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각국의 연금제도 등이 외국인이나 국외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되고 있으며, 협정이 발효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사회보장협정(가입기간 합산) 체결 국가는?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가입기간 합산)이 체결된 국가는 2010년 3월 현재 캐나다, 미국, 독일, 프랑스, 헝가리, 호주,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폴란드, 불가리아, 슬로바키아입니다.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혜택은?

-협정 상대국에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셨던 분은 사회보장협정에 의하여 상대국 연금 납부(인정)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협정국 법령에 따른 연금 수급요건(연령 및 기간)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협정국으로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미국에 9년간 연금보험료(약 1억원)를 납부하고 66세에 도달한 이OO씨 경우,

-협정 발효 전 : 미국에 보험료만 납부하고, 급여 수급 불가

-협정 발효 후 :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5년)과 미국 가입기간(9년)을 합산한 결과, 양국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이 충족되어 협정에 의한 노령연금 매월 약 105만원 수령

*한국 연금액(5/14) : 약 200,000원을 국민연금 공단에서 수령

*미국 연금액(9/14) : 약 846,000원을 미국 SSA에서 수령

*한국(또는 독일) 가입기간이 있었으나 일시금을 수령하여 가입기간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연금 수급을 위한 국가별 수급 요건은?

국가별	수급 (조기)연령	수급요건	합산 최소 기간
캐나다	65(60)세	CPP: 1회 이상 OAS: 해외거주청구시 20년 (캐나다 거주 청구시 10년)	1년
미국	66(62)세	10년	1년6월
독일	65(63)세	5년	-

*협정에 의한 상대국 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국 사회보장번호, 가입기간 등에 관한 정보가 사전에 필요하며, 조기연금의 수급조건은 추가 수급조건(소득유무, 가입기간 등)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한합니다.

*협정 상대국 제도에 따라, 급여를 지연 청구하는 경우 급여의 소급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적기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A3월드컵 주역)

월드컵 유치위 콜린스 국제 협력 담당관

"한국 월드컵 열정 감동... 어머니 나라서 다시 유치하고파"



"2002년 한일 월드컵은 정말 놀랍고 감동적이었어요. 2022년에 그때의 감동을 다시 한 번 느꼈으면 좋겠어요." 2022년 월드컵 유치위원회의 리사 콜린스 국제 협력담당관(31. 미국. 사진)은 8년 전 한일월드컵 때의 뜨거웠던 열기를 잊지 못한 다.

"연세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울 때였는데 신촌 거리 곳곳에서 응원판이 붙어졌잖아요. 한국인들은 모르는 사람하곤 인사도 안 하지만 그때는 달랐어요. 응원분위기에 젖어 누구와도 쉽게 동화됐다고나 할까요. 정말 즐겁고 놀라운 경험이었죠."

콜린스 씨에게 한국은 어머니의 나라다. 그 인연이 미국이 아닌 한국의 월드컵 유치를 위해 힘을 보태는 일로 이어 졌다. 뉴멕시코 알버커키 사립중고교시절 축구선수로 활동해 축구와도 친숙하다.

미국은 초중고교에서 클럽활동으로 축구가 활성화되어있다. 자녀를 매번 축구장에 데려다 줄만큼 극성스러운 주부에게 '사커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그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콜린스 씨의 어머니 민영희 씨가 바로 '사커맘' 이었다.

어머니의 나라를 더 알고 싶어 1999년 한국을 처음 방문했던 콜린스 씨는 2001년부터 2년간 한국에 머물렀고 2007년 미국에서 로스쿨을 졸업한 뒤 미 정부가 지원하는 한국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한국을 찾았다. 아산정책연구원원에서 일하다 유치위원장을 맡은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의 권유로 지난해 9월 유치위에 합류했다. 영어 관련 일을 도맡아 하는 그는 유치위의 창구 역할을 한다. 이번 남아공 월드컵 기간엔 현지에서 파견돼 유치 활동을 할 예정이다.

"한국인들의 축구열정은 정말 대단해요. 응원은 뜨겁지만 건전하죠. 이겨도 으스스대지 않고 져도 예의를

갖춰요. 축구장 시설은 이미 다 있으니까 월드컵을 유치하는 데 빠지는 게 없죠."

잘 생겨서 크리스티아누 호남두(레알 마드리드)를 좋아하지만 화려하진 않아도 팀 내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을 본받고 싶다는 콜린스 씨는 유치원 활동이 끝나면 한미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데 힘을 보태는 일을 할 계획이다.

김성규 기자(kimsk@donga.com)

2010 남아공 월드컵

대한민국 5월 경기일정

(한국시간 기준)

5월 16일 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 vs 에콰도르

5월 24일 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 vs 일본

5월 말 최종 엔트리 23명 발표

**Break out of your shell...
EXERT CONFIDENCE!**



**Watch them transform
and become more:**

- Self-Confident
- Disciplined
- Flexible
- Coordinated

Give your kids the edge they
need to succeed while having
great fun.

Dynamic Taekwondo Center
5850 Eubank # B - 35
(505) 271-2000
New master in town
Master Jaeshin CHO
CALL NOW !!!!
I'll honor all previous Y'kim's,
pride tkd students



**Special
Introductory class
\$29.95
FREE Uniform**

Expires on June 30 2010.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석중 목사

요한복음 3:14~16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치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기 2:8~9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동산 하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아름다운 동산, 그리고 여러 생명체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그 곳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

그 곳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에덴동산 하면 옛날에 있었던 일로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금도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생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의식하든 무의식속에서든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에덴에서 추방당하였습니다. 지금도 정신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할 뿐 아니라 세상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인류는 나날이 늘어 가는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을 자초하는 일들을 심지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과학적으로 문명이 많이 발달하고 그것으로 인해 편리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편리해진 과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구가 되고 죽고 죽이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이 없고 하루 하루 이루어 지는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로 하여금 대신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가 나무에 달아올린 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았듯이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던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 멸망을 자초한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는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일 뿐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부르짖은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의 피로써 대신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그를 믿고 따르느냐? 아니냐?입니다. 실제 형식적으로 따르는 사람은 적지 않습니다. 사실로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요한복음 13:34~35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마태복음 5:37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을 악으로 좇아 나느니라

요한일서 3:14~15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므로 사망(死亡)에서 옮겨 생명(生命)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死亡)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것 증오는 살인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한 그가 말했듯이 내가 형제를 사랑하므로 사망에서 생명길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시다로 끝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확인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읽을 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죄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욱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미워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신명기 30:15~20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가 장구치 못할 것이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되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 글을 읽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려 삼으시고 늘 지켜주세요.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동행하므로 영원히 즐겁고 건강하고 반가운 소식으로 이어지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이석중 드림.

"그런데 이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김준호 장로

몇 달 전에 아들 생일이어서 전화를 걸어 "Happy Birthday"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 물었다. "How long we know you, Jon?" 아들은 대답했다. "I know mom by 10 months more than I know you, dad." "Wow!" 그것은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엄마 뱃속에 열 달 동안 있었으므로 엄마를 더 오래 알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가끔 한국나이는 어떻게 미국나이는 어떻게 말들을 한다. 아들은 한국 나이를 따지고 있는 것이었다. 하긴 쌍둥이라도 몇 분 차이로 형 아우가 결정되거나 언니 동생이 판가를 나는 판인데, 10개월은 간과 할 수 없는 긴 시간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특히 6일째 되는 날에는 자기 형상대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기뻐하셨다. 아담과 이브의 창조는 모든 창조의 절정을 이루는 위대한 일이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라고 되어 있다. '아담'이란 이름 자체도 '흙'이라는 뜻이 있다. 왜 하필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까? 어떤 이들은 코웃음을 치며 빈정댄다. 이런 창조 이야기를 믿지도 않을 뿐더러 한 가지 설화 정도로 여기기도 한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NASA AMES 연구소에서 어떤 연구원이 우리 인체의 구성 요소를 연구했다. 그의 논문에 의하면 우리인체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땅에도 있다는 것이다. 이 보도를 듣고 비판하는 사람은 "So what!"하기도 하고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가볍게 넘긴다. 성경의 진실성을 믿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있는 원소들이 땅에도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창세기 2장 21-23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로 칭하리라 하니라"로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때 머리

뼈를 쓰지 않고 또는 발에 있는 뼈로 만들지 않았다. 만약 머리뼈로 만들었다면 의당 남자를 조종하려 하였을 것이며, 발뼈로 만들었다면 노예처럼 취급받았을지도 모른다.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것은 남녀가 동등됨을 말해준다. 동반자란 말이다. 하와를 아내로 받은 아담은 첫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극찬하였다. 그래서인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여자라고 해서 옛날부터 미술가나 조각가들의 모델이 되었던 것이다.

어떤 대학교 인체 해부학 시간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질문하였다. 사람의 갈비뼈가 몇 개인지 아는 학생? 어떤 학생이 서슴지 않고 대답했다. 남자의 갈비뼈가 하나 적지 않나요? 이 학생은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대로 대답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남녀 똑같이 24개이고 가끔 가다가 23개인 경우가 있다고도 한다. 히브리말로 남자를 "이쉬"라 하고 여자를 "이쉬"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남녀를 똑같이 귀하게 창조하였다는 좋은 예라고 본다.

성경은 여러 성경기자들이 오랜 기간, 약 1400년 동안 기록한 것이고 또 과학이 발전되기 전에 기록되었다. 그래서 성경내용을 과학적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상치되는 점이라든지 아니면 증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회한한 사실은 현대과학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성경내용을 분석하다가 성경의 진실성을 인정하는 과학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한 가지 예로 갈릴레오의 지동설이다. 그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은 그때 많은 어수룩한 과학자들이 지지했던 천동설(태양이 지구주위를 돌고 있다는 설)을 채택하고 이것을 뒷받침한다는, 다음과 같은 성경구절을 인용하였다. 시편 93편 1절 후반부에 있는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 하도다"란 구절이다.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 하도다"라는 것을 지구가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풀이했고 과학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구절의 원어를 다시 면밀하게 검토한 즉 지구는 지정된 궤도를 움직이지만 그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고 해석된 것이다. 우리는 성경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해야 된다. 다시 말한다면 성경 안에 이미 지동설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지동설은 Copernicus가 들고 나왔던 것이다. 천동설은 Aristoteles가 제창했던 것

으로 현재는 역사적인 유물로 남아 있을 뿐이다.

현재 과학자들이 창안해 낸 이론 가운데는 '빅뱅 이론'(Big Bang Theory = BBT)이다. 본인은 이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미 광야의 소리에서 지적한 적이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거대한 계란(?) 모양을 지녔던 최초의 우주가 폭발되어서 현 우주가 형성 되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폭발되어서 팽창되는 모양이 마치 Pan cake모양을 만들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상식으로 폭발이 터진다면 사방으로 불규칙하게 파편이 번져 나간다는 사실을 안다. 그런데도 BBT는 여러 과학자들에게 인정받는 이론이라고 알려져 있다. BBT가 정말 현대 우주 물리학의 정설인지는 더 연구해봐야 할 과제이다.

또 하나의 회한한 성경진리를 소개하려 한다. 창세기 17장 12절을 보면 남자 아기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째서 8일일까? 현대의학 연구에 의하면 Vitamin K와 아기의 지혈 능력이 아기의 탄생 후 5일에서 시작되고 7일째 최대치가 된다고 한다. 결국 생후 8일째는 할례 최적기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창세기가 기록된 그 옛날에 어떻게 이런 최첨단의 의술을 알고 사용토록 하였을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이런 신비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창조냐 진화냐?"하는 문제는 여러 증거물이 진화론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가고는 있지만 좀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는 골칫거리이다. 아직도 학교에서 여전히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드는 쥐는 없다는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진화론은 잘못된 것이니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식이다. 17세기에 많은 과학자들이 로마 교황청의 압력에 동조하여 천동설을 지지 했는데 21세기에는 반대로 여러 어수룩한 과학자들이 진화론에 동조하고 있다. 다윈이 제창한 진화론을 보면 무생물에서 유생물로,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 심지어는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 된다고 한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 맞는 것 같다. 17세기에 소란을 피웠던 천동설 때와 유사하게 21세기에는 진화론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고 있으니 말이다. 현재 누구의 압력 때문인지 알 수가 없다. 혹시나 영국신사의 체면을 보아서일까.

진화론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 창조론 또는 지적

설계(Intelligent Design=ID)이다. 내가 보기에는 창조론이나 ID나 다 같다고 보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창조론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 하셨다는 것이고 ID는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창조주와 같은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가진 설계자(an intelligent designer)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는 말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자기 환경에 따라서 성격이 형성되고 고정관념도 만들어진다. 애굽의 지독하고 강박한 마음을 가졌던 바로 왕을 보면 얼마나 그 마음이 요지부동이었는지 알 수 있다. 바늘로 찔러도 피한방울도 안 나올 정도로 소름끼치는 마음보를 가진 그런 왕이었다. 양은 냄비처럼 쉽게 뜨거웠다 식었다하는 변덕이 심한 인간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강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는 더욱 안 된다. 현재 ID를 들고 나오는 과학자들도 열린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

창조론자나 ID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화론자들처럼 우주 만물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1)만약 지구가 화성(Mars)처럼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다면 지구는 영원히 빙하로 덮혀있을 것이다. 반면에 태양 가까이 있었다면 지구상의 모든 것은 다 타버려 잿더미가 되었을 것이다.

2)만약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는다면 지구 반쪽은 늘 밤만 계속되고 다른 반쪽은 너무 더워서 모든 것이 말라 버릴 것이다.

3)만약 지구가 23도 기울어져 있지 않았다면 지구상의 4계절은 없고 한쪽은 늘 여름 다른 쪽은 늘 겨울만 있을 것이다. 어떤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실 안에 있는 지구본이 삐딱하게 23도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보고 선생님께 질문하였다. "선생님, 왜 지구가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습니까?" 선생님의 대답은 "이 지구본이 고장이 나서 다시 고쳤더니 그렇게 되었다."고 했다. 이 선생님은 지구가 23도나 기울어져 있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그런데 사실 지구는 23도 기울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뱅이처럼 1-2도 뒤뚱거리며 자전한다. 이것으로 인해서 제트기류가 형성되고 지상의 공기와 바람과 구름을 뒤 흔들어서 비도 내리고 습기도 하고 덥기도 하는 것이다.

4)만약 지구의 체중이 몇 %만 작았더라면 지구 인력이 약해져서 지구상의 공기가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 생물들이 숨 쉴 수 없었을 것이다.

5)만약 지구의 대기권이 조금만 더 얇았다라면

외부에서 수없이 날아오는 별뿔들 때문에 많은 곳이 쑥밭이 되었을 것이고 또한 강한 UV light 때문에 피부암 환자들이 무척 많았을 것이다.

6)만약 이 지구상의 공기가 질소 78%, 산소 21%가 아니고 100% 산소만으로 되어 있었다라면 이 지구는 오래전에 폭발 되어서 지구가 없어졌을 것이다.

7)만약 Proton(양자)와 Electron(전자)의 무게가 현재 우리가 발견한 것보다 약간 가볍거나 무거웠더라면 태양의 핵융합반응은 지속되지 못하고 태양이 서서히 식어 버릴 것이다. 태양이 식으면 지구는 끝장이 난다. 즉 종말이 온다는 말이다. 성경에서도 종말을 말하고 있는데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그런데도 소위 우주천문학을 안다는 자들 가운데 우주의 종말을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중에는 2012년 12월에 21일 쯤에 우주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란 주장도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에 광야의 소리에 언급했던 바가 있다.

나는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만들어진 이 우주가 그저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자상하게 우주 만물을 창조 하셨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했음을 고백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과학발전에 집념하면 좋을 것 같다. 갈릴레오는 재판장에서 무서운 경고를 받고 재판장을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태양을 돈다"라며 혼잣말을 했다고 한다. 이 얼마나 통쾌한 말인가! 우리도 갈릴레오처럼 "누가 무어라고 해도 이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란다.



ALLSTAR REALTY LLC
OUR NAME SAYS IT ALL™

김영신 부동산

Associate Broker
7001 Prospect NE, Ste. 200
Albuquerque, NM 87110
yongfre@yaho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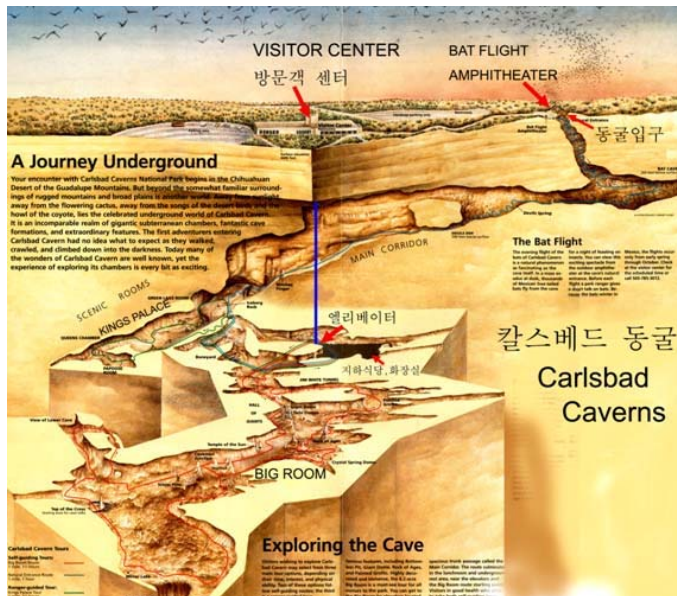
505.321.7695 (cell)
505.888.1700 (office)
505.888.9650 (office fax)

[뉴멕시코 관광안내]

칼스베드 동굴 국립공원

이경화 장로

칼스베드 동굴 국립공원(Carlsbad Caverns National Park)은 뉴멕시코주 남동쪽 칼스베드(Carlsbad) 도시 근방에 있다.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거대한 지하 동굴이 있는 연방정부에서 관리하는 국립공원이다. 공원의 지하에 있는 석회암이 수천만년 동안 지하수에 녹아 동굴이 형성되었는데 이 지역에는 약 300개의 동굴이 확인되었다. 그 중 116개의 동굴이 공원지역 안에 있다. 그 중에서 몇 개의 동굴만이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는 것이다. 1930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1995년 UNESCO 세계자연유산(World Heritage Site)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매년 이곳을 찾아오는 여행자수는 40만 명 내지 50만명이 된다. 공원은 사철 어느 때나 방문할 수 있고 동굴안의 온도는 계절에 관계없이 항상 화씨 56도(섭씨 13도)이므로 여름에도 긴소매 옷을 입고 들어갈 것을 권한다.



[그림 1] 동굴의 단면도. Blue, Red와 Green으로 세 가지 가능한 코스를 표시해 놓았다.

동굴을 구경하는 방법으로는 걸어서 내려가는 방법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Visitor Center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이고 대부분의 여행객이 택하는 방법이다. 입장시간은 여름철인 경우에는 8:30am~5:00pm 까지고 여름철이 아니면 3:30pm이 마지막 입장시간이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755피트 땅 밑으로 순식간에 내려가서 풋 볼 경기장보다 더 넓고 큰 공간으로 나온다. 이곳에는 지하 식당, 선물 상점과 화장실까지 있다. 여기서 수평으로 원을 그리듯 한 바퀴를 돌며 Big Room이라

고 부르는 동굴을 보게 된다. [그림1]에 빨간색 줄로 표시해놓은 Big Room 코스는 약 1마일되는 거리로 약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걸린다. 중간지점에는 short cut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코스의 절반만 보고 돌아올 수도 있다. Wheelchair를 탄 사람도 코스의 2/3장도를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대표적인 경관으로 62ft 높이의 Giant Dome으로 이름 지은 석순(Stalagmite)과 그 옆에 있는 42ft 높이의 Twin Domes 석순이 있고 헤아릴 수 없이 뾰뾰히 달린 고드름 같은 종유석(Stalactites)들 수정같이 맑은 연못인 Mirror Lake등을 들 수 있다.



[사진 1] Rock of Ages Big Room Route (Photo source: NPS website)



[사진 2] Dolls theater의 종유석들 Big Room Route (Photo source: NPS website)

두번째 방법으로는 걸어서 내려가는 방법이다. 체력이 어려움이 없고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이 코스가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주차장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동굴 입구에 있는 원형 야외극장을 통해서 동굴로 들어가는 방법이다. 입장시간은 여름철인 경우에는 8:30am~3:30pm 까지다. Trail은 경사가 다소 급하지만 포장의 질이 잘 되어있고 조명이 잘되어 있어서 걷는데 큰 불편은 없을 것이다. [그림1]에 이 코스는 청색줄로 표시가 되어 있다. 동굴 속으로 내려 갈수록 높고 넓은 공간으로 바뀌면서 신비로운 지하 세계의 예술품들을 보게 된다. 약 1 1/4마일

정도를 걸어 내려가면 지하 755ft,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지점과 만나게 된다. 여기서는 앞에 언급한 빨간색으로 표시한 1마일되는 코스로 Big Room을 둘러본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Visitor Center로 돌아가면 된다.

위의 두 가지 Self-Guided Tour 코스 외에 Ranger와 함께 안내를 받으며 단체로 구경하는 Guided Tour가 몇 개 더 있다. Kings Palace Tour가 가장 인기 있는 코스인데 여름에는 거의 매 시간 마다 출발한다. 1마일거리인데 약 1시간 반이 걸린다. 동굴의 Big Room에서 출발해서 가장 낮은 830ft지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코스인데 아름다운 왕궁의 방들을 보는 듯한 코스다. [그림1]에 초록색으로 표시한 코스다.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원하는 시간에 맞추기 어려울지 모른다. 일인당 \$8.00의 추가비용이 든다.

칼스베드에 있는 호텔에서 하루를 묵고 가는 여행 스케줄을 잡았다면 여름 저녁 해진 뒤에 있는 박쥐의 비행쇼(Bat Flight Program)를 꼭 보기를 권한다. 동굴입구에는 원형 노천극장 (Amphitheater)이 있는데 여기서 Ranger로 부터 박쥐의 생태에 관해서 설명을 듣고 나면 해가 저물고 수천, 수만 마리의 박쥐가 동굴에서 나오는 박쥐 비행쇼를 보게 된다. 하루 저녁에 많을 때는 40만 마리의 박쥐가 동굴에서 나온다고 한다. 박쥐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면 여러 가지 신비로운 점을 알게 되고 보통 우리가 박쥐에 대해 잘못된 관념을 가졌던 것도 알게 된다. 비용은 무료이다.



[사진 3] Bat Flight Program에 모인 여행객이 동굴 입구 노천극장에서 박쥐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Photo source: NPS website)



[사진 5] 박쥐들이 동굴에서 나오는 장면. (Photo source: NPS website)

알버커키에서 칼스베드 케븐스 국립공원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I-40 East로 가다가 Clines Corners에서 285번 도로로 바꾸어 남쪽으로 Carlsbad까지 간 뒤 62번 도로로 바꾸어 El Paso쪽으로 18마일을 가면 Whites City라는 마을이 나온다. 여기서 7마일 서북쪽으로 들어가면 공원에 이른다. 총 거리는 약 300 마일이 된다. 공원의 입장료는 15살까지의 어린이는 무료이며 성인은 \$6.00이다.

■ 웹사이트 주소: www.nps.gov/cave/

전화: (575) 785-2232

인근지역 관광지 Roswell

알버커키에서 칼스베드로 285번 도로로 가다보면 칼스베드를 76마일 앞에 두고 떨어진 곳에 있는 로스웰(Roswell)을 지나게 된다. UFO 비행접시 사건의 뉴스로 인해서 널리 알려진 인구 약 5만의 작은 도시다. 1947년 Roswell의 북쪽 어느 농장에 비행물체가 추락사고가 있었다. 이를 Roswell 사건이라 부르는데 미군이 비밀리에 소련의 핵 폭발음을 탐지하려고 띄운 열기구의 추락사고로 발표했으나 외계에서 온 비행접시의 추락으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이곳에서는 매년 7월4일을 기해서 UFO Festival이란 행사를 마련하여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한다.



[사진 6] Roswell에 있는 New Mexico Military Institute (Photo by Stuart Pritchard)

Roswell 주변에는 농장이나 목장으로 깔려있는 조용한 도시지만 관광객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중요한 곳이 몇 개 있다. 첫째는 1891년에 세워진 New Mexico Military Institute 라는 학교이다. 고등학교 과정과 Junior College과정의 학교인데 이 학교 출신 학생이 미국의 5개의 사관학교로 많이 진학하거나 직업군인으로 나가게 되지만 꼭 군인이란 직업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학교 출신으로 TV News로 이름난 Sam Donaldson, 풋볼선수로서 Dallas Cowboy팀의 Quarterback으로 이름을 날린 Roger Staubach가 있다. 학교 안에는 Military Museum도 있다. Museum입

장료는 무료다.

■ 웹사이트 주소: www.nmmi.edu

전화: 1.800.421.5376

두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곳은 Roswell Museum이다. 이곳에는 미술전시 외에도 미국의 근대 로켓트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Goddard의 발명품과 그의 작업실을 보여주고 있다. Goddard는 Massachusetts 주에서 1926년 세계최초의 액체연료 추진 로켓트 발사에 성공했다. 로켓트 발사 실험을 하는데 입지조건이 더 좋은 Roswell로 이주한 것은 1930년이다. 여기서 12년간 수많은 로켓트를 개발하고 발사 실험을 했다. 미국의 항공우주국 (NASA) 에서 1959년 설립한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Goddard Space Flight Center)는 Dr. Robert H. Goddard의 이름을 따서 세운 연구소인 것이다. Museum 입장료는 무료.

■ 웹사이트 주소: www.roswellmuseum.org

전화: 1.575.624.6744)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아마도 Roswell의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미국의 Folk Song 가수면서 작곡가였던 John Denver일 것이다. 그는 1997년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기 전까지 300여곡을 음반으로 내어놓았고 그 중 200여곡은 본인이 직접 작곡한 곡이었다. 유명한 곡으로 'Take Me Home, Country Roads', 'Sunshine on My Shoulders', 'Annie's Song', 'Thank God I'm a Country Boy', 'My Sweet Lady', 'Love Again', 'Rocky Mountain High'등이 있다.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 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Lunch
11:00-2:0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9:30 Fri-Sat
Closed on Sundays

Lunch
11:00-2:3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10:00 Fri-Sat
Closed on Sundays

KOREAN B.B.Q HOUSE
Sushi & Sake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
phone (505) 338-2424
fax (505) 338-2426

[Essay]

The Road to Myself

Chung Gil Lee, DVM, PhD
Professor Emeritu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Born to a farmer and raised for most of my early years in a small village near Naju, Jeollanam-do, I started my freshman life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in 1959. After completing



postgraduate studies in 1969 I became a member of the university staff. Yet time passed on swift wings and the retirement age, 65, was upon me in February 2007. During all that time, my university life was interrupted for only four and a half years when I undertook my compulsory military service as an interpreter officer with the Korean Army.

To be close to my family, I retired to Albuquerque, New Mexico. The experience was life changing for me. The first thing I had to learn was to be alone. Ultimately, we are all alone anyway; the isolation is often imposed by geography, language, or poor communication systems. It was not long before I realized that the time when I have hardly anything to do is the most precious gift for me. Because of solitude, my only new experience was that of aging. Therefore, I decided to learn how to age with dignity and how to make my post-retirement years useful.

Retirement gave me a chance to rearrange my priorities. First of all, I had to learn how to live well. Everybody knows we human beings do not live forever. However, as long as we are of sound mind and body, most of us would like to stay on earth for as long as possible. There is a saying that good health is a temporary condition. Fortunately, the new place in which I settled has an altitude of 2,000 meters and is dry, with abundant sunlight most of the year, ideal for walking every day. It has been a joy of mine to be one of the many walkers on the city streets or on the high desert

mountain trails. These days, more and more evidence shows that exercise may not only add years to one's life but also delay the onset of disabilities in one's golden years. My major concern is to live independently or at least to delay the use of a walking cane for an extra decade or more.

Determined to enrich my life, I have started to learn more about graciousness. I have learned to suspend judgment. Most of all, I have learned to be humble. Aging necessitates preparing for the end of life. We need to be honest with ourselves and acknowledge that for all of us death is inevitable. The sooner we realize this, the more freedom we will experience. Consequently, I decided not to focus on how I might die, but consider how I should live. Life is fleeting you can live a lifetime and, at the end of it, know more about other people than you know about yourself. I wish, most of all, to avoid this.

When my mind is burdened by the myriad of daily worries, I cannot have good health and so, to avoid these stresses, it has been my aim from my youth to ensure that I tend the garden of my own mind carefully and diligently. Stress is a frame of mind. These days I walk almost every day, and when I take a walk outside, I do not focus on details. I use my senses to pay closer attention to my present environment, which is totally different from that of my hometown, Kwangju. What does the air smell like? What are the sounds and the colors? What are the contours of the clouds? What is happening in the distance? Most of all, I enjoy the fresh air coming down from the majestic Sandia Mountains.

The atmospheric effects of this new place have led me to have more time to concentrate my mind. The ability to concentrate is a gift most human beings are rarely born with. In search of this, I take the Lotus Seating on a thick carpet and, with closed eyes, place the hands on the knees, palms outwards with three fingers stretched out, the first finger bent so that it lies under the thumb. Within seconds, thoughts tumble into my inner silence. I try not to think about anything in particular, but let my thoughts wander as they will, while breathing in and out, gently and rhythmically. Soon I discover that I am thinking of


nothing in particular; in fact, about nothing at all. I am being with myself, feeling lighter, happier, and less distracted. My mind has emptied itself and is ready for whatever thoughts I wish to place in it.

In the emptied mind many questions arise. Where did I come from? Where might I be going? How am I going to get to wherever that is? What can I learn from the past that will help guide me in the future? Am I doing my utmost as a good citizen, parent and neighbor? Can I leave the world a little better than when I came into it? What am I constituted of? Who am I? Most of the time, I try to focus upon the main question, "Who really am I?" for as long as possible, only to find my application to be inconsistent at best. Once it becomes second nature, I am convinced that I will experience inner bliss, a deeply fulfilling sensation of peace, joy and freedom.

Relaxation is a necessary prerequisite to concentration. The first stages of concentration

www.parkfineart.com

2010 INTERNATIONAL Tour Show



PARK James **Park Fine Art / US / 2010.05.03_05.28**
 20 First Plaza Suite 65 Albuquerque, NM 87122 USA
www.parkfineart.com
 001-505-764-1900

Gallery Edel / Japan / 2010.06.10_06.15
 HANANOMCHI NISAKAN 2F-1-1-3 SAKAEMACHI, TAKARAZUKA-CITY, HOKKAIDO, JAPAN
<http://gallery.edel.co.jp/en.html>
 TEL: +81-75-991211

대산미술관 Dee-San Museum of Art/Korea / 2010.06.21_07.03
 64-934 광복 3대신 미술관 294번지
www.dessanart.com
 055-291-5237

lead to a withdrawal of all the senses, so that the impulses streaming through the sense organs are so diminished as to be negligible. This induces a sense of physical and mental exhilaration and prepares the mind for the next stage, in which one can merely focus one's senses on one thought, idea, picture, or object. After this, one can reach the ultimate stage, Samadhi, or a sense of ineffable peace.

As far as I am concerned, it is the mind training that is of value, and constant meditation will teach you to live life according to higher ideals. My aims are limited: good health, a mind free from worry, and inner peace for the rest of my life. I shall keep trying not to lose the advantage of solitude the society of myself while keeping both body and mind at ease. Surely, old age will treat me gently accordingly.

나바호와의 첫 만남

2005년 7월에 제가 평신도 집사로 섬기던 교회가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생수의 강 선교교회였습니다.

그때 저는 미국 인디언 선교에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딱히 어느 부족이다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생수의 강 선교교회에는 나바호선교를 위해 선교사 한 분이 파송하고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2004년 이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교회에서 어느 날 전도사님 한 분이 미국인디언 선교사 한 분이 오신다며 소개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나봤는데 아하, 아는 분이셨습니다. OMKAM이라는 선교 단체에서 미션 퍼스펙티브 교육을 할 때 그 곳에서 뵈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한 의사 자격증을 획득하면 바로 선교사님 사역지를 방문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 7월 처음으로 나바호 의료선교를 께럽으로 갔습니다. 의료 선교팀이라 해봐야 한의사인 저와 간호사인 집사람 그리고 뉴욕에서 놀러온 조카 여대생 그리고 제 두 아들이 전부입니다. 한마디로 한 가족이 의료 선교를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열심히 사역을 도와주고 있는 께럽의 어느 나바호 교회에서 침을 놓고 기도하고 열심히 의료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한 부부가 아들이라면서 9살 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모두 저에게 침을 맞았는데 신기하다면서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니 정강이뼈가 아프다고 합니다. 아이 다리의 통증은 매

일 해가 질려는 시간부터 시작하며 데굴데굴 통증에 구르며 울고불고 난리를 치다 지치면 잠이 든다고 합니다. 매일 밤마다...

저는 도무지 그 아이 통증의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한의학적인 진단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데, 신장부분의 문제인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린아이가 왜 신장에 이상이 생겼으며, 다른 증상은 무엇인가? 아무리 진단을 하려고 해도 도무지 막연했습니다. 그러다 스쳐가듯 들은 말 중, 이 아이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라 양부모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정서적인 문제 중 공포와 두려움은 신장을 해친다는 한의학 이론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이 부모님께 물어 보았습니다. 이 아이의 친부모가 혹시 너무 심하게 학대하며 아이를 키우지는 않았습니까? 부모는 조금 망설이듯 하더니, 선교사님께 저에게 아이와 그 부모에 대하여 말해도 좋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그 아이 부모에 대해 말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하마터면 큰소리로 울 뻔했습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인데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마당에서 엄마를 총으로 살해하고 방에 있던 이 아이의 누나 형 등 3명을 또한 총으로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형 누나가 총 맞아 죽는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 이후 다리의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The Vaughan Company REALTORS®

Albuquerque 거주 27년과 부동산 중개업 11년 경력의 노하우로 여러분을 성심성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직통전화: 505-797-6820
핸드폰: 505-249-8686
팩스: 505-822-0734
무료전화: 800-727-3697

6703 Academy NE Suite A, Albuquerque, NM 87109

시세이도 화장품
윤상옥 (Beauty Advisor)
H: 890-4018
B: 883-5900
SHISEIDO
Dillard's 백화점
2100 Louisiana Blvd Ne Ste 155
Albuquerque, NM 87110

어떻게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있었습니까? 침으로, 보약으로...? 무엇으로 이 아이의 상처와 통증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까? 신장을 치료하는 침을 놓으려하니 아이가 한마디로 발광을 합니다. 정말 침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 부모 말이 그 날 이후 예방 접종도 하나도 못합니다. 자신의 몸을 해칠 것 같은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그 작은 바늘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너 캘리포니아가 어디 있는지 아니? 열 몇 시간을 운전해야 이 곳에 올 수 있는 아주 먼 곳이야.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의사야. 의사인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아니? 예수님께서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의 통증을 아픔을 치료해 주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야. 내 말을 믿고 침 한 개만 맞자." 저는 이 아이가 침 한 개만 맞으면 저희가 전한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믿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전에는 발광하던 아이가 침을 맞았습니다. 얼굴의 모습은 공포의 모습이었지만...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봐 아무렇지도 않잖아. 다른 쪽 다리에도 한 개만 더 맞자..." 웬일입니까? 침을 두 개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주일 예배 후에 이 아이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No more pain" 선교사님과 부모님은 "이제 봐라 조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네..." 참 신기하게 말하더군요. 왜냐하면 충기 사고 이후 이 아이는 낯선 사람에게서는 옆에도 안가고 말도 안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와서 얘기를 했으니... 이렇게 나바호와 저는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아이, 지금까지 통증이 재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 목에는 아이를 치료해줘서 고맙다고 그 아이 부모가 선물해 주신 나바호 전통 모양의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 있습니다.

나바호 땅 어디를 가나 이렇듯 상처가 너무 심한,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의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Grace Community Church는 나바호 족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2009년 7월에 문이 닫혔었는데 지난 부활주일을 맞이해 주님께서 저에게 사역의 기회를 주시고 교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 여름 7월 25일 주일 11시 예배를 재창립 예배로 드릴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 중 여름 단기 선교의 목적으로 이곳에 오셔서 재창립 예배를 도와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 교제의 시간에 한국 음식으로 나바호 분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Late Rains Healing Mission

Missionary Pastor 조성현(Peter Cho)
Tel (505) 870-9838
e-mail navajo9won@yahoo.com
www.navajolove.com

{종교 소식}

기독교 미주 성결교회 뉴멕시코주 한인 성결교회

최치규 목사님, 전종철 목사님

주일예배

§ 시간: 11:00 am

새벽기도

§ 시간: 5:30 am (매일)

§ 장소: 9607 Menaul NE, Albuquerque, NM 87112
(408) 334-7227

로스 알라모스 교회 (Los Alamos, Santa Fe)

노강국 목사님

주일예배 1부

§ 시간: 11:30 am

§ 장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 시간: 2:00 pm

§ 장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매달 넷째 주일은 연합예배입니다.

§ 시간: 11:30 am

§ 장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박종인 전도사님

주일예배

§ 시간: 11:00 am

§ 장소: 1441 East Mesa. Las Cruces, NM 88011

목요일 6:00 pm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님

주일예배 (Worship)

§ 11:00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in English)

§ 11:00 am (Sunday)

금요기도회 (Fri. Night Prayer Meeting)

§ 7:30 pm (Friday)

새벽기도회

§ 5:30 am (Mon-Fri)

§ 6:00 am (Sat.)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님

주일예배

§ 시간: 12:00 am (한국어 예배)

1:00 pm (Indian 영어예배)

§ 장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 연락처: 505-453-5461

뉴멕시코성결교회

** 뉴멕시코성결교회는 개척자이신 최치규 목사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전혀 알지 못하던 뉴멕시코 지역으로 오셔서 2009년 2월 14일 설립하셨고 동년 7월 19일 뉴멕시코 한인회관에서 창립예배를 드렸습니다.

** 2010년 1월 9일 최치규 목사님의 사역을 돕고 뉴멕시코 지역에 네이티브 인디언 선교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전종철 목사님 가정이 뉴멕시코성결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 뉴멕시코성결교회는 미주성결교회 엘에이 동지 방회에 정식 등록된 성결교회입니다.

** 2010년 3월 21일부터 뉴멕시코성결교회는 한인회관에서 예배 장소를 FIRST CONGREGATIONAL UNITED CHURCH OF CHRIST로 이전하여 3월 21일(주일) 오전10시 한미연합예배를 시작으로 매 주일 오후 1시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 현재 교회 위치는 아래 약도와 같습니다.



애리조나 반이민법통과, 미국인들은 압도적 지지

여론의 반대로 지난 30일 수정법을 통과시킨 애리조나주가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는 갤럽이 지난 주 미국 성인 1013명을 전화로 설문조사한 결과, 4분의 3

이상이 애리조나 이민법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그 중 51%가 이 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하는 미국인은 39%에 그쳤다. 정당별 찬성 비율은 공화당원이 62% 민주당원 27% 무소속 37%로 각각 나타났다.

'앵거스 글로벌 모니터'의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도 71%가 주와 지역 경찰이 불법체류자라고 '합리적 의심이 드는' 사람을 단속하도록 한 내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그 비 인터랙티브가 지난 달 16~19일 2108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이민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여론이 많았다.

조사 대상자의 79%가 "불법 체류자가 미국 시민과 같은 권리 및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데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이민법 전문가들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미국인의 반감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라고 평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켄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가 서명한 이민단속법은 불법 체류를 주 범죄로 규정해 로컬 경찰이 이를 단속하도록 규정했었다.

그러나 이민자 커뮤니티의 반발이 거세지자 인종차별 논란을 피 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한편 애리조나 주의 이민법에 반발하는 도시도 늘어나고 있다. 웨스트 할리우드 시의회는 4일, 시정부 관계자들이 애리조나 주 여행을 금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다.

[출처: LA 중앙일보]

[건강정보]

의사 선생님, 저 골프해도 될까요?

50대 중년 남성, 골프만 해도 허리가 아픕니다.
운동을 무리하게 했던 걸까요? 재활의학과 정선근 교수가 <골프와 통증의 관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일전에 어느 골프 전문지 기자로부터 "근골격계 클리닉에서 보는 환자분들의 통증이 골프와 관계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작심을 하고 외래에서 환자분들마다 문진을 해보니 남성 환자분들 중에는 절반 이상, 여성 환자분들 중에는 1/4 정도에서 골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답을 했습니다. 물론 골프를 치는 도중 부상을 입은 경우도 있지만 그 보다는 "골프는 가끔 치는데 언제부터인지 허리나 어깨, 팔목 등이



재활의학과 정선근 교수

아프기 시작하였고 이 때문에 골프 칠 때 불편하다." 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골프는 상대방과 볼을 다투며 싸움을 하는 경기도 아니고 강한 스매싱을 받기 위해 쓴살같이 뛰어 다니는 것도 아니라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조그만 공을 칠 뿐인데, 또 상대 선수들이 같이 달려들기는 커녕 뒤로 멀찍이 물러서서 숨 죽이고 기다리기만 하는데 왜 근골격계 통증이 그토록 많이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골프가 근골격계 통증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골프를 치는 연령>, <골프 동작의 특성>, <반복적 충격>을 꼽습니다.

연령의 요인은 누구나 쉽게 짐작하듯이 골프를 시작하고 연습하는 연령이 (프로가 아닌 이상) 많은 경우 40-50대이고 최소한 30은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열심히 쳐서 전성기를 이루게 되는 것은 시간과 경제적인 여유를 충분히 갖게 되는 40대-60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근골격계의 여러 구조물들 - 근육, 힘줄, 인대, 연골, 뼈 등-은 30세부터 퇴행이 시작되며 40대가 되면 퇴행의 증상이 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프를 왕성하게 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근골격계의 퇴행이 꽤 진행되어 이미 여기저기 통증이 시작된 분들입니다. 벽돌을 씹어 먹어도 잘 소화 해내는 나이가 아니라 최고급 한우를 먹어도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는 연령에 있다는 것이 골프 손상을 촉발하는 중요한 배경임에는 의심에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골프 때문에 손상을 입어서 통증이 발생한 것인지 골프를 하면서 통증을 발견한 것인지 구분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골프 동작의 특성에 의한 손상의 요인도 당연히 고려해야 합니다. 골프를 칠 때는 허리를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허리에 회전운동이 진행되는 것이 기본 동작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허리에는 디스크(척추 추간판)라는 물렁뼈가 허리의 움직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디스크는 바깥쪽은 섬유륜이라는 딱딱한 껍질로 되어 있고 안쪽에는 수핵이라는 말랑말랑한 젤 성분의 물질이 있어 마치 잼이 들어 있는 도너츠 같은 모양으로 허리의 운동을 가능하게 하고 운동 중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게 됩니다. 디스크의 수핵은 허리를 약간 구부리게 되면 뒤쪽 측,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 쪽으로 이동하는 힘을 받게 되고 허리를 회전하게 되면 섬유륜이 수핵을 고정하는 능력이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말하자면 골프 스윙은 수핵이 뒤쪽 섬유륜을 찢거나 뚫을 확률을 높게 하고 이 때문에 디스크 탈출증도 생기고 디스크 내장증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허리의 회전운동은 디스크뿐만 아니라 허리 뒤에 있는 후방관절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는데 허리 근육이 처리하지 못할 정도의 강한 회전을 가하게 되면 후방관절에 손상을 입게 되고 한동안 허리가 빠근한 통증이 지속하게 됩니다.

또 다른 골프 동작의 문제는 테니스나 야구보다 훨씬 긴 클럽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긴 클럽의 끝에서 클럽헤드가 공과 부딪혀서 발생하는 강한 반발력은 손, 손목, 팔목, 어깨로 그대로 전달이 되는데 지렛대의 원리에 의해 클럽이 길면 길수록 더 강한 힘이 관절에 가해져서 더 큰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팔목에 가해지는 힘은 골프 엘보나 테니스 엘보의 증상으로 나타나고 어깨에 가해지는 충격력은 회전근개(힘줄) 손상이나 어깨 관절 연골이나 인대의 손상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반복성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몸의 손상 혹은 모든 기계적인 손상은 한 번의 강한 힘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약한 힘이라도 수없이 반복되는 충격에 의해 서서히 손상이 가중되다가 어느 순간에 찢어지면서 문제가 됩니다. 평생을 라운딩해도 똑같은 조건에서 샷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는 하지만 약간의 지형지물의 차이, 클럽의 차이는 있으나 골프 스윙에 사용되는 근골격계의 움직임은 거의 유사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드라이빙 레인지에서 연습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무수한 반복의 연속이 되어 설사 한 두 번의 샷으로 받는 충격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200타, 300타 연습을 하게 되면 찢어지는 힘줄이나 손상되는 인대나 연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좌측 팔목(엘보)이 엉망으로 망가져 진료실을 찾은 50대 여성 골퍼한테 "도대체 어떻게 이토록 심한 손상되었냐?"고 물었더니 "워낙 승부욕이 강하여 한 번 라운딩할 때 좋은 스코어가 안 나오면 그날 저녁 2-3시간씩 연습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골프와 부상의 관계가 이러하다면 <나이들어서 허리나 팔에 무리가 되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 즉, <골프>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근육, 힘줄, 인대, 연골이 약해져서 손상을 받기 쉬운 것이므로 이들을 제대로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면 됩니다. 70세가 넘어도 적절한 강화

운동을 하면 근력과 힘줄의 강도가 증가된다는 연구결과
는 수두룩합니다. 골프와 관계되는 허리, 어깨, 팔목 등을
특별히 강화시키는 방법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운동을 중
심으로 근력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나이로 인한 부
상은 많이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기 언급한 골프 동작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정확하고
정상적인 스윙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피로에 빠진
상태에서 혹은 오버스윙에서 손상이 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상적인 스윙에서는 근육, 힘줄, 인대, 연
골 등이 생체 역학적으로 조화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
가 되지 않으나 피로하거나 과도한 욕심으로 스윙 메커니
즘에 문제가 되는 순간 역학적으로 가장 약한 부분에 손
상이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며칠 동안 매일 36홀 라운딩
을 계속한다거나 심한 과욕을 부리는 플레이는 부상 발생
의 확률을 매우 높게 되므로 이를 피하는 것이 좋겠습
니다. 진료실에서 보면 허리 디스크로 오래 고생하다가
치료를 받은 직후 "이제 골프 시작해도 됩니까?"라고 묻
는 분들이 많은데 "하셔도 좋지만 허리 주변 근력 강화를
충분히 하고나서 시작하시고 내기(골프)는 당분간 하지
마십시오."라고 농담반 진담반 대답을 하는 속뜻이 바로
그러합니다.

반복적 충격에 의한 문제는 반복적인 충격에 의해 생체
조직이 서서히 손상되어 나가는 것인데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얼마나 자주 반복 되는가", 즉, <반복되는 동작
의 인터발>입니다. 우리 몸의 조직은 일정한 양의 충격을
주면 손상을 받아 약해졌다가 충분한 시간을 주면 치유가
일어나며 더 강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장미란 선수가
보통사람은 그 아래 깔리기만 해도 뼈가 부러지고 관절이
꺼질 정도의 역기를 아무런 손상 없이 들 수 있는 것은 극
도로 단련된 근육이 관절을 보호하고 수없는 반복 연습과
이에 따른 휴식과 정에서 강화된 힘줄, 인대, 연골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반복 동작의 인터발을 최대한 길게 가
져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복 동작의
인터발이 매우 짧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연습
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히, 플레이가 잘 안되고 나
서 승부욕을 삭이면서 하는 연습 때는 더욱 짧은 인터발
로 많은 공을 치게 되므로 이때 일어나는 부상이 실제 라
운딩 때 일어나는 부상보다 더 흔하고 더 심한 경우가 많
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어서 가장 널리 즐길 수 있는 운동인 골
프는 나이 그 자체, 골프 동작, 반복적 충격 등의 문제로
근골격계 손상을 유발하게 되는데 흔한 손상을 보이는 부
위에 대한 적극적인 강화 운동과 정상적인 스윙 메커니즘
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반복적 충격의 인터발을 최대화
하는 방법으로 그 손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
다. 문제는 위의 세 가지 방법을 철저히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고 또 철저히 수행하여도 골프 손상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여 여러 가지 부상을 입을 수 있는데 이럴 때
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잘못된 믿음에 빠져서 병을

키우지 말고 조기에 전문가로부터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출처: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소식 SNUH WEBZINE]



The Galeria 20 First Plaza NW Suite 27
Albuquerque, NM 87102

문화센터 강의 안내

성인, 주부취미반 (유화-oil painting과 파스텔화)
입시반 (포트 폴리오준비반, 덧생반)

강사: 박 영숙
서양화가, 갤러리 Director,
UNM CE oil painting 강사

□ 자세한 안내 문의 □

갤러리: (505)-764-1900 휴대폰: (505)-681-3859
www.parkfineart.com E-mail: contact@parkfineart.com



Everything
You Need
for
Oriental
Food

A-1
한국식품점

(505)-275-9021
1410 Wyoming NE
Albuquerque NM 98112



ICHIBAN
Japanese Restaurant

一番 Japanese Food
& Korean Food

Phone (505) 899-0095
www.ichiban-alb.com
10701 Coors Blvd. NW Albuquerque NM 87114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알버커키

Albuquerque

한국식품점

Korean Grocery

A-1 Oriental: 1410
Wyoming NE, Albuquerque
(505-275-9021)

Airang Oriental: 1826
Eubank NE, Albuquerque
(505-255-9634)

Dinho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Blvd NE,
Albuquerque
(505-883-2665)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lbuquerque
(505-296-8568)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A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lbuquerque
(505-255-9634)

Fu-young 3107 Eubank #16
NE, Albuquerque
(505-298-8989)

Fuji Yama: 5001 Central
Ave NE, Albuquerque
(505-265-9774)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lbuquerque
(505-899-0096)

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505-883-3618)

Korean BBQ: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505-338-2424)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lbuquerque
(505-296-8568)

Midori Susui 6205-B
Montgomery NE,
Albuquerque
(505-830-2507)

Pacific Rim Asian: 10721
Montgomery NE,
Albuquerque
(505-271-0920)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lbuquerque
(505-890-2838)

Samurai: 9500 Montgomery
NE, Albuquerque
(505-275-6601)

Shogun: 3310 Central Ave
SE, Albuquerque
(505-265-9166)

Sizzler: 7212 Menaul Blvd,
Albuquerque
(505-833-5755)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87109
(505-797-8000)

Yen Ching: 4410 Wyoming
NE, Albuquerque
(505-275-8265)

Yummi House: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505-271-8700)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생내츄럴: 2302 Morris
NE, Albuquerque
(505-453-5461)

공인회계사 CPA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5850 Eubank NE,
2270 Wyoming NE,
9411 Coors NE,
1418 Juan Tabo NE,
6124 4th St NW,
1903 Coors SW,
11816 Central SE,
4312 Coors SW,
1649 Bridge SW,
Albuquerque
(505-999-8222)

Stadium Liquor 1306
Broadway SE, ABQ, NM
87103
(505-242-8542)

모텔 Hotel/Motel

Ramada Inn: 2015 Menaul
Blvd NE, Albuquerque
(505-881-3210)

부동산 Realtors

그레이스김 Grace Kim:
Kerzee Real Estate
(505-315-5123)

김영신 Yong Shin Kim:
Jade Southwest Realtors
(505-321-7695)

수잔리 Susan Lee:
Coldwell Banker
(505-934-8949)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최귀분 Gui B. Bonaguidi:
Vaughan Company
(505-249-8686)

세탁소 Dry Cleaners

Barbone's Cleaners: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Executive Cleaners: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8858)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NM 87108
(505-266-3231)

신발 Shoes

Rio Shoes: Coronado Mall
6600 Menaul NE,
Albuquerque
(505-883-9009)

의류 Clothes

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lbuquerque
(505-884-2202)

Central Outlet: 4716

Central Ave SE,
Albuquerque

(505-255-4345)

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Suite C,
Albuquerque
(505-830-9400)

GEM X Imports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3420)

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1-6355)

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Hair Dynamic(Ashley):1500
Wyoming Blvd. NE
(505-296-2336)

Matthew Lee's Hair
Style(홍정희): 11901
Menaul NE,
(505-271-1056)

Nob Hill Barber Shop
(Sunny):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Pance Hair Salon(Tina):
4300 Ridgcrest Dr NW
(505-907-9229)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종교 Church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lbuquerque, NM 87110
(505-271-8031)

뉴멕시코 성결교회: P.O.Box
94855, Albuquerque, NM
87199
(408-334-7227)

샌타아 장로교회: 10704
Paseo Del Norte NE,
Albuquerque
(505-823-1678)

알버커키 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505-803-7716)

알버커키 침례교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505-331-9584)

주님의 교회: 12120 Copper
Ave NE, Albuquerque
(505-903-2297)

주택융자 Loan Officer

김미경 Mikyong Kim
(Homemortgage) 200
Lomas Blvd. NW 11flow
87102
(Office 505-765-5098)
(cell 505-379-1089)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치과 Dental Clinic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커피 재료 Coffee

Moons Coffee & Tea: 1605
Juan Tabo NE,
Albuquerque
(505-271-2633)

태권도 TaeKwonDo

Dynamic taekwondo
academy 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505) 296-0336

한의학 Acupuncture

Dr. Chang: 4716 Central
Ave SE, Albuquerque
(505-710-7504)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Dr. Park: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 #B 87113 (505- 514-2900)

화랑 Gallery

Park Fine Art Gallery(박영숙): 20 First Galleria Plaza NW, Suite # 27 (505-764-1900)

화원/원에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lbuquerque (505-345-6644)

사진관 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

중재서비스

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lbuquerque, NM 87112 (505-332-9249)

리오란초

Rio Rancho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4300 Ridgcrest Dr. SE Suite # O Rio Rancho, NM 87124

Osaka Restaurant: 1463 Rio Rancho Blvd, Rio Rancho (505-892-7778)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8855)

클로비스 Clovis

종교 Church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Gospel Clovis Full Korean: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62-4510)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생내추럴: Los Alamos (505-662-9681)

종교 Church

산타페 한인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412 -5420)

산타페 Santa Fe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Osaka (Traditional Japa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

종교 Church

New Beginning Church 480A County Rd. 84 Santa Fe, NM 87506 (505-577-4572) (cell 505-577-4572/황세희씨 남편 Damon Duran)

갤럽 Gallup

신발 Shoes

Rio Shoes: 1300 I-40 Frontage, Ste 304B, Gallup (505-722-8396)

모텔 Hotel/Motel

Day's Inn: 3201 W. HW66, Gallup (505-863-6889)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Five Brother's Chinese: 1001 E. University Ave., Cl, Las Cruces (575-496-2445)

공인회계사 CPA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5800) (Fax 575-523-7700)

카페/ 선물 Cafe/Gift

Eg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0098)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

종교 Church

라스크루세스 침례교회: 1441 East Mesa Las Cruces NM 88001 (915-276-2773)

화밍톤

Farmington

종교 Church

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rington, Farmington (505-453-5461)

가게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벼룩 시장 FLEA MARKET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광고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

연방 국세청 IRS - Tax Advocate Service에서 지정한 본 회사는 뉴멕시코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납세자를 위해 채류 신분에 관계없이 각종 세금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세무처리 해 드립니다. 한국어 상담은 '개일' 을 찾으세요.

Low Income Taxpayer Clinic
Imperial Services Corp.
Nonprofit Organization
7103 4th Street NW, Unit O-3
Albuquerque NM 87107
Tel: 505-503-7252
www.imperialnm.org

구인/구직

렌트/부동산

룸 렌트 (Room Rent)
Now available 2 rooms of 3 bedroom
Rent: \$300
Deposit: \$100, Utility divided by using room number no smoking, no pet
(505) 352-5775
(505) 331-8607

사고/팔고

정보마당

도와주세요



알버커키 박영숙 화가(www.youngsookpark.com)와 김수영 화가(www.geocities.com/hongsooyoungstudio)의 작품들입니다.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뉴멕시코주 한인회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505) 271-1777 www.kaanm.com

stamp here

61 cent 우표
붙인 후 반으로
접어서 발송

To: